

벤투호 승선 하라... 생존경쟁 시작됐다



나상호



황의조



문선민



김영권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한·중·일 리거 23명 울산 소집... 조현우 등 4명은 내일 합류 18명 컨디션따라 맞춤형 훈련... 아시안컵 공인구로 분위기 후끈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울산에 모인 '벤투호'가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훈련으로 담금질을 이어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둘째 날 훈련을 치렀다.
전날 오후 겨울비를 맞으며 미니게임 등 첫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둘째날은 오전 강한 바람 속에 1시간 반가량 훈련이 진행됐다.
14일 합류가 예정된 조현우(대구) 등 4명을 제외한 19명 중 이날은 18명이 그라운드에 나섰다.
전날 숙소에서 컨디션 조절에 힘썼던 황의조(김바 오사카), 장우호(전북), 김준형(수원), 시상식

참석으로 늦게 도착한 이용(전북)이 돌아왔다.
소집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던 황인범(대전)은 이를 연속 운동장엔 나오지 않은 채 실내에서 의무 트레이너와 따로 회복에 집중했다.
황의조, 장우호, 김준형은 전술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라운드 주변을 가볍게 돌거나 패스를 주고받는 등 몸을 푸는 데 중점을 뒀다.
이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참가한 전술 훈련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다듬기 시작했다.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 후방 빌드업 과정에 특히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수비수들이 하프라인 쪽에서 길게 패스를

올리면 측면의 이용(전북), 홍철(수원) 등이 받아 크로스로 잇고, 이를 골대 앞에서 득점 기회로 연결하는 연습이 반복됐다.
김민재(전북)의 롱 패스를 왼쪽에서 홍철이 받아 연결하면 조영욱(서울)이 마무리하는 식이다.
이러진 미니게임에서도 이런 과정은 강조됐다.
각 팀의 중앙 수비진에는 김영권(광저우)-박지수(경남), 김민재-권경원(대전)이 호흡을 맞춰 공격전개의 시작점 역할을 했다.
벤투 감독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곧장 선수들에게 알려주며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아시안컵을 향한 마지막 '생존 경쟁'을 위해 벤투호가 집결한 울산은 이미 아시안컵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일단 훈련에 쓰이는 공부터 아시안컵 공인구가 도입됐다.

아시안컵 공인구는 앞선 3차례 대회(2007, 2011, 2015년) 때 모두 나이키 제품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몰텐의 공을 쓴다.
농구나 배구공으로 더 이름이 알려진 몰텐은 이번 2018-2019시즌부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도 공인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안컵 공인구는 이번 대회 상징과 유사하게 빨강, 초록,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선수들은 미니게임에서 이를 사용하며 적응에 나섰다.
선수들이 훈련장에 들어설 때 정면에 보이는 광고판 자리엔 공식 폰트도 아시안컵 이름이 새겨진 게 눈에 띈다. 통상 협회나 대표팀의 로고, 후원사 이름이나 광고 문구 등이 들어가는 곳이다.
대회 이름 하나가 들어갔을 뿐이지만, 아시안컵이 다가왔음을 알려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박항서 매직' 베트남, 홈에서 10년 숙원 푼다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아세안축구연맹(AFF) 스프리컵 결승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베트남의 응우옌 후이흥(가운데)이 팀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날 2-2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은 오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승 2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스프리카컵 결승 1차전 말레이시아 2-2 무승부... 15일 하노이서 2차전

'박항서 매직'을 앞세운 베트남이 동남아 최고의 축구 잔치인 아세안축구연맹(AFF) 스프리카컵 2018에서 10년 만의 정상 탈환 희망을 살렸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응우옌후이흥의 선제골과 팜득후이의 추가 골로 2-0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두 골을 허용해 말레이시아와 2-2로 비겼다.
베트남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15경기 연

속 무패(7승 8무) 행진을 벌였으나 기선 제압에는 실패했다.
A매치 15경기 무패는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가 작성했던 최다 무패와 타이 기록이다.
베트남은 오는 15일 오후 9시 30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으로 말레이시아를 불러들여 결승 2차전을 벌인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말레

시아를 압박했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수차례 말레이시아의 문전을 위협한 베트남이 마침내 선제골을 뽑았고, 응우옌 후이흥이 해결사로 나섰다.
2-0 리드를 잡은 베트남은 전반 36분 말레이시아의 샤를 사드에게 추격 골을 내줬다.
베트남은 도안반하우가 상대 선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후반 15분 프리킥을 내줬다. 말레이시아의 키퍼로 나선 사파위 라시드가 강하게 잡아당긴 공이 대각선 골문에 꽂히면서 2-2 동점이 됐다. 양 팀은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연합뉴스

FIFA 클럽월드컵 오늘 UAE서 개막

세계 최강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2018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비롯한 대륙별 챔피언과 개최국 UAE의 알아인 등 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툰다.
한국인 수비수 정승현과 골키퍼 권순태의 소속팀인 가시마 엔트러스(일본)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했다.
특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인 정승현은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11일부터 울산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리그 선수 중심의 대표팀 소집훈련에서 빠졌다.
개최국 알아인과 팀 웰링턴이 13일 오전 0시 30분 개막전인 1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 풀레이트가 유럽과 남미 챔피언 자격으로 준결승에 선착한 가운데 나머지 5개 팀이 4강에 오를 두팀을 가린다.
가시마-과달라하라 승자가 레알 마드리드와 4강에서 맞붙고, 1라운드 개막전을 통과한 팀이 에스페란스 드 튀니스와 대결해 이긴 팀이 리버 풀레이트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연합뉴스

아쉬웠던 손흥민... 토트넘, 챔스리그 16강

인터밀란에 원정 다득점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비기면서 극적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71분간 활약했다.
토트넘은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 노우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 조 최종전에서 바르셀로나와 1-1로 비겼다.
최종전 전까지 토트넘과 승점이 같았던 인터밀란(이탈리아)은 같은 시간 홈에서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과 1-1로 비기면서 결국 조 3위로 밀려났다.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투톱에 내세우고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델리 알리까지 주전 공격수들을 모두 투입했다.
반면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지은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와 제라르 피케 등을 쉬게 하며 1.5군으로

토트넘을 상대했다.
공격의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전반 32분 빠른 돌파로 일대일 찬스를 맞았으나 골키퍼 야스퍼르 실레션의 정면에 막혔다. 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슈팅을 날려봤으나 골키퍼가 몸을 던져 막았다.
손흥민은 후반 11분에도 골대 정면에서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따른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여러 차례 바르셀로나 골문을 공략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8분 메시를 투입해 승리 확정에 나섰다.
그 시간 인터밀란이 에인트호벤과 1-1로 비기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이대로 가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였다.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 40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모우라의 오른발 슈팅이 마침내 바르셀로나 골문을 뚫으면서 멀어지던 16강행 티켓을 다시 거머쥐었다. /연합뉴스